

멕시코 김리아 선교사님 소식입니다~

메리 크리스마스

올해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과 함께
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느끼는 한해 였습니다.
뜨개질과 미싱교실 머리컷트 성경암송교실
찬양대회와 가난한 아이들과 고아들을 섬기면서 감사했습니다.

한 교회에 화장실을 짓는것과
고아원에 미싱 도네이션을 하는 것은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.

신년 계획도 올해와 동일한 움직임일거 같습니다.
내년 상반기까지 머리컷트를 가르치면 자체로 머리를 깎을수 있을것 같습니다.
그 다음은 다른 장소에 가서 가르칠 겁니다.

무엇보다 마약 카르텔이 문제인데
안전하길. 방해받지 않길 기도해주세요